

박홍률 목포시장 “내년 해상풍력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

2025년 시정운영 방향 제시
앵커기업 투자 유치 모색 등
김 등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
예산안 1조28억... 1.87% ↑

목포시가 내년에 해상풍력·친환경선박 산업 등 미래 전략산업에 집중할 예정이다.

3일 목포시에 따르면 박홍률 목포시장은 지난달 29일 제394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2025년도 시정운영과 예산편성 방향을 밝히고 오는 2025년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미래 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시는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과 같은 로벌 트렌드에 맞춰 해상풍력산업, 친환경선박산업 등 미래 전략산업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목포신항을 거점으로 해상풍력 융복합 산업화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를 조성, 앵커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해 목포시를 해상풍력 허브 도시로 구축한다는 목표다.

또 남항을 거점으로 친환경선박 클러스터를 조성해 연구·실증·교육을 아우르는



박홍률 목포시장이 제394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목포시 제공

글로벌 친환경 선박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내년 해양경찰청의 해경 서부정비장(목포 허사도) 개장에 맞춰 수리조선산업도 신동력산업으로 키워나간 다.

시는 국내 김 수출이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만큼 전국 1위 수산식품산업 도시를 위한 발걸음도 재촉한다.

수산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포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은

오는 2026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수출 주도형 김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 마른김 거러소 개장, 해수취수시설 3호기 신설 등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지역 특화산업으로는 어묵산업을 육성해 목포의 수산업 경쟁력을 향상 시킬 예정이다.

관광 부문에서는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을 통해 2000만 관광객 시대를 조기 달

성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유달산 서면 유원지 조성 △북향노을공원 명소화사업 △남향재개발 △목포대교 야간경관 사업 △장좌도 해양관광리조트 조성사업 추진으로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확충한다.

이어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을 위해 소규모 항만재생사업, 고하도 바다낚시 공원, 남해안 해양레저관광벨트 사업 등을 단계별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인구 증가 정책으로는 목포와 신안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또 미래인재 양성 및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매진, 교육발전 특구 시범사업과 연계한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고 청년 스타트업 지식산업센터, 청년창업인큐베이팅 플랫폼 구축을 통해 청년 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취창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목포형 문화도시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향토음식 진흥센터, 기록교 근대역사관, 나전칠기 열린 수장고 등 새로운 인프라를 확충한다.

또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국제수목

비엔날레,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 내년 목포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메가이벤트를 통해 대외적인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정부의 지속적인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내년도 우리 시 재정 역시 어렵고 힘든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목포의 미래 100년을 위해 시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며 “내년에도 목포시가 더욱 발전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가 내년도 시정 운영을 위해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 총규모는 올해 본예산보다 약 1.87% 증액한 1조28억원으로, 일반회계 9133억원, 특별회계 895억원이다.

분야별로는 △일반행정 344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57억원 △교육 155억원 △문화 및 관광 648억원 △환경 622억원 △사회복지 4370억원 △보건 163억원 △농림해양수산 442억원 △산·중소기업 및 에너지 153억원 △교통·국도 및 지역개발 729억원 △기타 및 예비비 1446억원 등이다.

목포=정기찬 기자

내년 장애인일자리사업 403명 모집

일반형·복지·특화형 등 11일까지

목포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오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목포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장애인복지법 기준)으로, 선발인원은 총 403명이다.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일자리에 참여하게 된다.

먼저 목포시가 직접 수행하는 일반형

일자리(전일제·시간제)는 64명을 선발한다. 공공 및 복지시설에 배치돼 복지행정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또 복지일자리(319명)와 특화형일자리(20명)는 민간위탁수행기관(6개 기관 및 단체)에서 참여자를 선발해 지역사회 내 환경정리, 급식도우미, 경로당 및 복지관 안마서비스 등에서 활동하게 된다.

궁금한 사항은 목포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목포=정기찬 기자



목포시 죽교동 자생단체회원들이 지난달 27일 자매결연지인 신안군 압해읍사무소에서 진행된 '2024 압해읍 사랑의 김장 한마당' 행사에 참여해 일손을 보태고 있다. 목포시 제공

목포 죽교동 자생단체, 신안 압해읍서 '사랑의 김장' 교류

목포시 죽교동 자생단체회원들은 최근 자매결연지인 신안군 압해읍사무소에서 진행된 '2024 압해읍 사랑의 김장 한마당' 행사에 참여해 부족한 일손을 보탤고 3일 밝혔다.

행사에는 죽교동 자생단체연합회와 압해읍 여성단체협의회 등 양 지역 주민들과 양양군 압해읍장, 김일섭 죽교동장 등

100여명이 참여해 김치를 버무리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양 지역은 지난 2019년 11월 자매결연 협약을 시작으로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농촌일손돕기 및 양 지역 축제에 참여하는 등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이달에는 죽교동 새마을부녀회에서 주관하는 '사랑의 김장 김치' 행사에 압해읍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을 초청해 교류를 지속할 예정이다.

전정남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은 "매년 서로 교류하며 얼굴을 보다 보니 이웃사촌을 넘어 가족과도 같은 사이가 됐다. 앞으로도 압해읍을 제2의 고향처럼 여기고 목포·신안 우호 증진을 위한 교류의 장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목포 근대역사관, 흰개미 방부방충 공사 '임시 휴관'

목포 근대역사관 1관(구 목포일본영사관)이 흰개미 방부방충 공사를 위해 3일부터 오는 6일까지 4일간 휴관한다.

목포시는 이번 공사는 국가유산청의 국가지정유산 긴급보수사업의 일환으로, 처음 흰개미가 발견된 지난 5월 목포시가 즉

시 국가유산청에 긴급보수사업을 신청, 사업진행을 승인받아 추진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흰개미 군비가 발생한 목포 근대역사관 1관 화장실과 전시실 천장 등에 방부방충제를 도포하고 건물 외부에 토양처

리를 할 예정이다.

공사 기간 중 약품 및 후처리를 하는 4일간 휴관을 진행하며 건물 내부 관람은 불가능하지만, 방공호 등 외부 관람은 허용된다.

이 기간 목포 근대역사관 2관은 정상 운영하며, 1관 휴관에 따라 2관 관람료를 50% 할인한다.

목포=정기찬 기자

목포시립도서관 '크리스마스 프로그램'

목포시립도서관이 12월을 맞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따뜻한 연말과 크리스마스의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크리스마스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한다.

3일 시립도서관에 따르면 가족에게 치유의 시간을 제공하는 현악 3중주 '애니메이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OST) 클래식 음악회'가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강좌로는 오는 12일 성인을 대상으로 '크리스마스 캔들 만들기'와 19일 초등생을 대상으로 '크리스마스 쿠키 만들기'가 진행된다. 어린이 자료실에서는 매주 겨울용품 만들기 활동인 '도서관에서 겨울나기'와 대출자를 대상으로 선물을 증정하는 '도서관에 온 산타'를 운영한다.

직접 올해의 책을 추천하고 독서 노트를 받는 '내가 뽑은 올해의 책' 이벤트와 크리스마스 트리와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어주는 '크리스마스 사진 촬영 이벤트'도 운영될 예정이다.

'애니메이션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클래식 음악회'와 '크리스마스 캔들 만들기', '크리스마스 쿠키 만들기' 강좌는 목포시통합도서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목포시통합도서관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목포시립도서관(061-278-3324)으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정기찬 기자